

북한 기도회

2024년 7월



1. 해외 북한 노동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올해 초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파업과 폭동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장기간의 임금 체불에 반발하여 북한 노동자 약 2천여 명이 집단적으로 당국에 책임을 묻은 것입니다.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출신성분과 북한의 철저한 통제를 고려할 때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들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본국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고된 노동과 폐쇄된 생활을 해왔습니다. 이들은 봉급의 절반 이상을 국가에서 징수하고 그 남은 액수만 지급받고 있지만, 그마저도 받지 못하게 되자 그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제대로 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노동력 착취를 통해 외화를 수급하는 북한 당국의 행태가 중단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북한 주민 의식 변화가 선교의 틈새로 작용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이번 해외 북한노동자 사태는 북한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당국에 책임을 물었다는 측면에서 특별한 사건입니다. 과거에는 당과 수령, 국가에 충성하는 것만을 배우고 알았던 북한 주민들이 부당한 대우에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의 배경에는 당과 수령이 먹는 문제를 해결해주지 못한다는 의식의 변화가 큰 몫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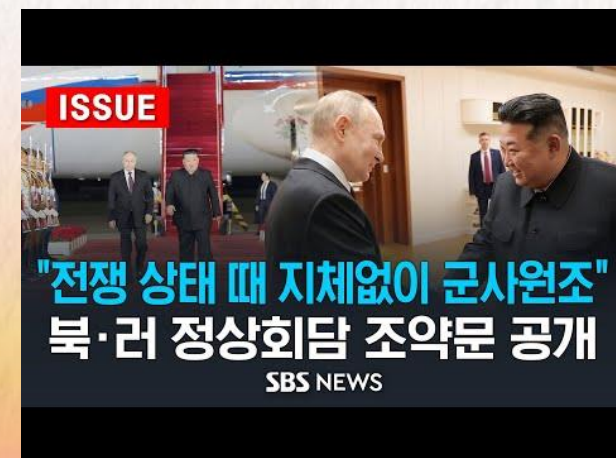
북한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이들을 향한 복음 전파에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하도록 기도합니다. 더 나아가 믿었던 국가로부터 실망한 이들이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그 사랑 안에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3.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이 정상회담을 가지고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맺었습니다. 해당 협정에는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하는 조항이 포함되었는데, 이는 '자동 군사개입'으로 볼 수 있는 조항이어서 양국 간 동맹관계가 28년 만에 복원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또한 이번 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은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언급하는 등 양국간의 군사 협력이 더욱 가시화 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북러의 밀착 관계는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의 군비경쟁을 부추길 수 있어 앞으로의 한반도 정세에 대한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긴장감이 높아져만 가는 한반도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샬롬의 평화가 진전되어 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4. 강제 복송된 신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3년 10월 중국에서 복송된 탈북자들 중에 성경을 접하거나 기독교 교리에 대해 들었다는 기록이 있는 사람의 경우 가차 없이 정치범수용소로 보내졌다고 북한 전문 매체 데일리NK가 내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우려했던 바와 같이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이 정치범으로 간주되어 가혹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해당 매체는 또한 소규모 복송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복송된 신자들과 강제복송 중단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요청됩니다.

탈북자 강제 송환이 중단되고 붙잡혀 있는 탈북자들에게 살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신앙을 가진 탈북자들, 특별히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간 이들의 안전과 안위를 위해 기도합시다. 북한의 기독교 박해가 하루 속히 중단되도록 기도합시다.



5. 북한에 억류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김정욱(2013), 김국기(2014), 최춘길(2014) 선교사와 탈북민 출신 김원호(2016), 함진우(2016), 고현철(2016)씨, 그리고 조선족 사역자가 억류되어 있습니다. 이들이 억류된지 10년이 지나고 있지만, 이들의 구명을 위한 교계의 각급 단체의 성명서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으며 한국교회가 함께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최춘길 선교사의 아들 최진영씨가 언론을 통해 석방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이들 갇힌 선교사들을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하게 하시며 갇혀 있는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하심을 얻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한 이들이 하루빨리 자유함을 얻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6. 해외 북한선교현장의 안전을 위해 기도합니다.

러시아에서 탈북민 사역을 하시다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백 모 선교사님의 구금기간이 기존 6월 15일에서 3개월 연장되었습니다. 구금 기간 연장은 지난 3월에 이어 두번째입니다. 지난해 러시아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사를 간첩혐의로 체포해 구금하고 1년 2개월이 지나서야 기소하기도 했습니다.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북러 관계 밀착으로 해외 북한 노동자와 탈북자 사역의 위축 우려가 높아지던 중에 발생한 이번 사건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는 해외 북한 선교 현장에 대한 우리의 기도가 절실함을 일깨워줍니다. 체포된 백 선교사님의 안전과 무사귀환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한 해외 각지에서 활동하는 북한 사역 선교사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백모 선교사가 수감된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구치소>

7. 북한의 심해지는 지도자 우상화 중단을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어린이들은 탁아소 시절부터 김일성가문 우상화 교육을 받습니다. 북한의 공교육 내용을 살펴보면 과목을 가리지 않고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김정은 우상화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김일성을 일컫는 호칭이었던 ‘태양’을 대신 김정은에게 사용하기 시작했고, 중앙간부학교 준공식에서는 김정은의 초상화가 김일성·김정은 초상화와 나란히 건물 외벽과 교실 벽면에 붙어있는 모습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지도자 우상화는 기독교에 대한 박해와 깊은 연관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이 잘못된 사상과 우상화의 죄에서 돌이키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찬양 받기 합당하신 오직 한 분이신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북한과 한반도가 되도록 기도합니다.



8. 북한 주민들의 민생 안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본격적인 여름이 다가오면서 재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북한은 매년 수해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데, 주거지와 경작지 인근 산과 들에 나무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홍수와 산사태로 인한 직접적인 인명 피해 외에도 농작물 작황 악화와 수인성 전염병 확산 등이 북한 주민들을 괴롭힙니다. 하지만 기반 시설과 물자가 부족한 북한의 상황으로 인해 매년 수해가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여름에 예상되는 수해 및 자연재해를 잘 대비하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또한 어려움에 처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한 본 선교회를 비롯한 여러 선교단체와 NGO의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16년 8-9월 태풍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함경북도 홍수피해 현장 >



<2021년 8월 함경남도 홍수 피해 현장>

주기도문

새번역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